

# “맛으로 건강으로 우리 축산물 브랜드로”

## 2007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성황



▲ 2007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막식. 이날 개막식에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 황민영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최준구 양계협회장, 서성배 계육협회장, 이정백 상주시장, 정광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강광파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남경우 농협중앙회 축산대표 등 농축산업계 단체 및 기관장, 소비자단체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축산관련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2007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107개 업체가 290개 부스를 장식했으며, 축산물 생산자 브랜드 업체를 비롯한 양돈협회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등이 부스를 구성하여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

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브랜드 경영체 관계자와 참관객들로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번 행사에는 브랜드업체 및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 홍보전시관이 운영됐으며,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비롯하여 축산물 요리솜씨 대회, 식육기술 경연대회, 우족 툽심탕 및 바비큐 배식행사, 우리 축산물 잘 먹고 잘 고르는 법 강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문화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식객'의 허영만 화백은 이날 축산인들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우족 뚝심탕을 손수 배식하고, 박 장관에 축산업 발전을 위한 그림을 헌정했다.

연회 등 다양한 전시와 다채로운 이벤트와 시식 행사가 실시돼 참관객들의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했다.

특히 각 시·도 추천을 통해 참여한 브랜드 경영체의 전시는 예년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됐으며 참가업체의 규모도 더 커졌다는 평이다. 참관객 역시 예년과 달리 2,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 무료입장 때 보다 진지한 자세를 보였다.

### “우리 통돼지 바비큐 많이 드세요!”

개막식 첫날 우족으로 만든 뚝심탕을 만화 '식객'의 원작가인 '허영만'이 참가하여 배식을 하는 한편, 둘째 날에는 국산 돼지고기 홍보대사인 인기 탤런트 '현영'이 통돼지 바비큐를 배식해, 참관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 돼지부문 대상 '크린포크'

이번 브랜드 경진대회에서는 (주)선진 '크린포크'가 축산물브랜드 돼지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부경양돈농협 '포크

밸리'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도드람조합의 '도드람포크'와 제주양돈조합의 '제주포크'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부문별로는 고품질부문에 진왕영농조합의 '동설백포크'가, 위생·안전성부문에는 소백산축돈영농조합의 '실라리안소백산축돈'이 각각 수상을 했다.

농림부는 또 대상을 차지한 선진에 5백만원의 상금과 무이자로 20억원을 지원했다. 최우수와 우수상에는 각 3백만원, 2백만원의 상금과 무이자로 10억원, 5억원을 지원했다.



▲ 행사 둘째날에는 인기 연예인 '현영'과 함께하는 2007 황금돼지해 우리 통돼지 바비큐 이벤트를 벌여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사진 왼쪽부터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 돼지고기 홍보대사 현영씨, 김동환 양돈협회장)



▲ 이번 브랜드 경진대회에서는 (주)선진 '크린포크'가 축산물브랜드 돼지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오른쪽이 선진 이범권 대표)



▲ 브랜드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경양돈조합 포크밸리



▲ 우수상을 수상한 도드람조합의 '도드람포크'와 제주양돈조합의 '제주포크'



▲ 품질부문을 수상한 진영영농조합의 동설맥포크와 위생·안전 부문을 수상한 소백산 축돈영농조합의 실라리안소백산 축돈

## 현영과 함께하는 양돈 퀴즈 이벤트

대한양돈협회는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양돈홍보관을 운영했다. 양돈홍보관에서는 국산 돼지고기 및 국내 양돈산업, 양돈협회와 양돈자조금 사업 등을 전시하여 참관객들에게 국내 양돈산업 전반을 소개했다.

또 국산 돼지고기 홍보대사 '현영'과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를 비롯, 안심·등심·뒷다리살 황금부위 다투기, 돼지꼬리 미녀 찾기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한편 포토존을 운영하고 기념품도 배부하여, 홍보관을 방문하는 참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를 이뤘다.



▲ 양돈홍보관에서 '현영과 함께하는 퀴즈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돼지고기 홍보대사 현영씨



▲ 축산물브랜드전에 전시된 등급별 국산돼지고기



▲ 우리 축산물 요리솜씨대회에서 요리 삼매경에 빠진 참가자들.

## 다채로운 황금부위 요리들 선보여

직장인과 학생을 비롯해 전문조리사까지 10대부터 50대의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 요리솜씨경연대회도 열렸다.

참가연령이 젊어지고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고기요리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첨가된 다양한 요리가 선보였다. 이름도 가지각색, 대상을 받은 '과일소스를 곁들인 세가지 한우 안주'를 비롯해 돼지고기 뒷다리로 만든 곱창 등 창의적인 요리 돋보였다는 평이다.

특히 선호부위인 삼겹살 부위 등을 제외한 황금부위로만 만든 요리들이 많이 선보여서 더욱 값지다는 평을 받았다.

## 행사장내 축산물 구매 열풍

추석 선물세트를 비롯해 브랜드 축산물의 상품 할인 판매에 일반 소비자들 발길 이어졌다. 행사 전부터 회식용 고기를 구입하려는 회사에서부터 선물세트를 구입하려는 주부들의 줄이 이어졌는데 각 부스마다 설치된 쇼케이스에 눈길 떼지 못하는 소비자들 늘어나 민고 살 수 있는 축산물 브



▲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명품 브랜드 축산물을 무료로 맛보는 시식행사가 열려 높은 호응을 받았다. (사진은 양돈협회 성주지부가 출품한 참외포크 시식회 장면)

랜드에 대한 인기를 보여줬다.

## 눈과 입맛 당기는 '고기굽는 냄새'

행사의 백미는 역시 시식행사. 이번 행사에서 시식행사 먹거리가 더욱 다양해 졌다는 평이다. 한국인의 최고 인기메뉴 삼겹살에서부터 돈까스, 소시지를 비롯해 허한 속을 달래는 곰탕까지 등장했다. 길게 늘어선 줄에도 불평 없이 노릇 노릇 굽히는 고기 냄새에 즐거워하는 참관객들 발길이 이어졌다.